



# 제주 범죄·생활 안전·자살 안전지수 최하위

행안부, 2025년 시도·시군구 지역안전지수 공표  
감염병 1개 등급 상향 반면 자살은 2개 등급 하락  
6개 중 3개 5등급… “중장기계획 개선 노력 지속”

제주 지역 주요 ‘지역안전지수’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6개 분야 지역안전지수 측정 결과 범죄·생활 안전·자살 등 3개 분야가 최하위 5등급에 머물렀다.

12일 행정안전부는 2024년 재난·안전 통계를 기준으로 2025년 지역안전지수를 공표했다. 지역안전지수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지역별 안전 수준과 안전 의식을 객관적으로 진단·분석한 지표로 각 지자체가 안전에 관심을 갖고 취약 요인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2015년부터 해마다 공표해 왔다.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도, 시·군·구 등 5개 그룹별 상대 평가로 1~5등급을 부여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하다는 의미다.

이에 따르면 2024년 6개 분야 전국 사망자 수는 2만3112명으로 전년보다 1226명(5.6%) 증가했다. OECD 평균 대비 분야별 사망자는 범죄(한국 0.6명/OECD 2.3명)는 3.8배, 화재(한국 0.6명/OECD 1.2명)는 2배, 생활 안전(한국 21.7명/OECD 34.9명)은 1.6배, 교통사고(한국 4.9명/OECD 5.5명)는 1.1배 각각 적었다. 반면 자살(한국 29.0명/OECD 11.2명)은 OECD 평균 보다 2.6배 많고 감염병(한국 2.7명/OECD 1.6명)은 감소 추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제주 지역은 이번에 교통사고, 화재, 감염병 분야에서 각각 2등급을 받았다. 감염병 분야는 전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랐다. 2024년에는 “2025년 지역안전지수 평균 2등급”을 목표로 내걸었다.

반면 범죄·생활 안전·자살 3개 분야는 모두 5등급으로 평가됐다. 이 가운데 자살 분야는 전년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하락하면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지역안전지수 공표에 따라 안전지수가 낮은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위험요소 분석과 맞춤형 대책 수립 등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살과 생활 안전 사고를 줄여나가

겠다고 했다.

앞서 제주도는 ‘2024년 지역안전지수’ 결과 발표 이후 지난 한 해 범죄·생활 안전 분야 1등급 향상을 목표로 경찰, 소방 등과 협업 체계를 강화하며 등급 상승에 총력을 쏟아 왔다. 2024년에는 “2025년 지역안전지수 평균 2등급”을 목표로 내걸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안전지수 결과에 대해 “작년에 안전지수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벌인 만큼 다음 발표 때는 등급이 조금 더 상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 자체적으로 2026~2030년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지속적으로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5곳 조성  
서홍 안덕 지역 등 328면 확보

서귀포시가 올해 85억원을 투입, 도심지 등에 공영주차장 5곳을 조성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42억원을 투입, 부지 매입 등을 거쳐 지역 내 서홍·동홍·안덕 지역 노외주차장 3곳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정제1호공원 지하주차장(118면), 금속 그린 스마트 공영주차장(53면)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주차환경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올해 공영 노외주차장 5곳을 조성하면 328면의 주차면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또 주차 수요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공영지를 무상으로 임대, 7억 원을 투입해 약 11개소(200면)의 무료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독자 제보 750-2232



해양쓰레기 수거하는 바다지킴이들 추위가 물러난 12일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해안가에서 바다지킴이들이 떠밀려온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

## 한라산 등반 예약자 10명 중 3명 정상 도전?

### 지난해 30만2500여명 성판악·관음사 코스 선택

지난해 한라산 등반 예약자 10명 중 3명이 정상까지 오를 수 있는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윗세오름까지 오를 수 있는 영실과 어리목 코스의 인기는 여전했다.

12일 한라산국립공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라산을 찾은 등반객은 90만3999명으로 3년째 90만명대를 유지했다. 코스별 등반객은 어리목 27만4465명, 영실 32만3644명, 성판악 22만4442명, 관음사 7만8076명, 돈내코 코스 3372명 등이다. 정상까지 등반할 수 있는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를 이용한 등반객이 30만2518명으로 33.5%를 차지했다.

월별로는 2~3월이 4만명대로 적었고, 특히 단풍이 드는 10월부터 눈꽃이 장관을 이루는 12월까지 매월 10만 이상을 기록하며 많았다.

2024년 한라산 전체 등반객은 92만8409명으로 지난해보다 많았다. 이에 앞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19로 인해 각각 69만9117명, 65만2706명 등에 그쳤다. 이후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2022년 85만744명, 2023년 92만3680명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백금탁기자

# 만감류 매달기는 디인굴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디인‘굴고리’가 있습니다!

#### 굴고리의 장점

1.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줄어듬→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재구입비 회수 가능
2.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3.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4.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5.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고정판+안파밴드를 세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디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

## 국립종자원 인증 '무병묘' 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 〈도내 / 국내육성품종〉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 〈포트묘〉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귤  
유라조생 / 하귤 / 팔식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 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010-4450-4316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조업 중 피 토한 선원… 해경, 긴급 이송

해상에서 조업 중 피를 토하는 선원이 발생해 해경이 구조에 나섰다.

12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9분쯤 제주시 우도 동쪽 약 20km 인근 해상에서 어선 A호(139t, 쌍끌이 대형기선저 인장, 부산)에서 60대 남성 B씨가 피가 섞인 구토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경은 즉시 구조 세력을 급파해 B씨와 보호자 등을 연안구조정으로 탑승시켜 오전 11시 20분쯤 성산항으로 긴급 이송했다.

A씨는 성산항에 대기하던 119구급대에 인계됐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양유리기자

## 서부하수처리장 증설 완료… 처리용량 확대

### 제주·동부처리장 공사도 순항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서부하수처리장의 증설공사가 마무리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12일 밝혔다.

서부하수처리장은 이번 증설로 하루 처리용량이 기존 2만4000m<sup>3</sup>에서 22만m<sup>3</sup>으로 하루 처리용량을 확대한다. 1단계 사업인 수처리시설(생물반응조)을 지난해 10월에 완공해 가동 중이며 현재 전체 공정은 54%다. 2단계 사업(전처리·찌꺼기·분뇨처리시설)이 진행 중이다.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은 기존 1만2000m<sup>3</sup>에서 2만4000m<sup>3</sup>으로 하루 처리용량을 확대한다. 오소범기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직원 사칭 사기

가짜 직원 명함 활용… 업체 선지급 요구 대금 가로채

JDC “계약 절차 없는 현금 선납·대리 구매 요구 안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 대납, 금융상품 가입 유도, 수의계약 및 입찰 절차 없이 보증금 선납, 대금 선납 등 현금 선납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12일 JDC에 따르면 사기범은 ‘JDC 휴양단지팀 송성훈’이라는 가짜 JDC 직원 명함을 제작·배포해 업체들의 신뢰를 얻은 뒤 대금을 선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금전을 갈취했다.

“올해 3200만원 규모의 신규 발주가 예정돼 있다”며 업체에 접근, 계약을 조건으로 특정 물건(제3의 제품)을 먼저 구매해 달라고 요구 했다. 또한 회사 사정상 물품을 대신 납품받아달라고 요청한 후, 해당 물품 대금을 선납 받아 그대로 잠적했다.

JDC는 공공기관의 신뢰를 악용해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JDC 직원을 사칭해 물품 납품을 요청, 대금을 선지급 받아 가로채는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